

8/16/15

설교 제목: 하나님은 확실히 사람과 다르십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1-11

- (호 1:1)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이요 여호아힘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 (호 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절관주** 사 50:1
- (호 1: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 (호 1: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 (호 1:5)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수 17:16, 샯 6:33
- (호 1: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절관주** 사 27:11
- (호 1: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시 33:16
- (호 1: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뎌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절관주** 호 1:3
- (호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2)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호 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절관주** 사 65:1
- (호 1: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향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읽노라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나를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 안고 살려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저립니다.

물론 비교도 안되겠지만 우리 다 부모된 입장으로 타락하여 필히 죽을 수 밖에 없는 길로 들어선 자녀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을 타락된 길에서 끄집어내어 살 길로 인도해 내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되어 더욱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호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야에게 직접 본인의 삶으로 performance 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 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행이 좋지 못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특하면 집을 뛰쳐 나가 다른 외간 남자와 외도를 합니다.

그럴때 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얼마 후 고멜은 또 집을 나가고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기를 반복합니다.

한번은 몸을 파는 창녀 촌에 팔려 간 것을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쓰시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다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스승이 어떤 보스가 품행이 방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을 하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 머리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요?

아하!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구나!

고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우상의 품에 안기는 음행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또한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긴 고멜을 데려다 용서하고 다시 받아 주는 남편 호세아는 우상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음행하는 음란한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말입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히브리어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비록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라도
종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뜻을 쓰시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암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 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훬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은 남 유다를 향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 세(BC 793-753)가 통치하던 시기에서 부터 남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BC 731-715)까지 약 45 년동안(BC755-710)예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B. C. 721 년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도 예언활동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중 약 40 년간 그의 예언 활동의 기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8 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부패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 2 세가 통치하던 이 때에 북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이후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누리고 살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없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호세아 선지가 아무리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외쳐도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호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 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 우상숭배한 죄입니다.

(호 11: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3.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호 11: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잘되었지만 반대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수천년 동안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배은망덕하고 음녀와 같았으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십니다.

(호 1: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 1:5)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흠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골짜기 이름으로 예후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아합 군대를 쓸어버린 곳인 동시에 예후 왕조가 신앙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흠어 버리신 곳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왕조로 구별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이끌고 가서 북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나담만 왕으로 세우고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 뒤 바사가 나담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시므리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시므리 왕조도 오래 가지 못하고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들어 섭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는 북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네 왕이 있는데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그의 아내는 바알 신을 섬겼던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참 신이 누구인지 담판 했던 갈멜산 대결!

그때가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와같이 오므리 왕조가 너무도 악하여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예후는 군사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합의 아들 70 명과 오무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성 밖으로 던져 그 피를 개가 핥아 먹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가 우상 숭배로 망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예후가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왕하 10:29)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벨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 세, 스가랴 4 대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후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B. C. 721 년 앗수르에 의해서 북 왕국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에서 북 이스라엘을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시킨 사람은 여로보암 2 세입니다.

여로보암 2 세는 B. C. 793 년부터 753 년까지 40 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너무나 잘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부패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가 세워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시 이들을 흠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 1: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 1: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B. C. 721 년 망하게 됩니다.

앗수르는 여세를 몰아 남 왕국 유다까지 공격하는데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며 히스기야를 약 올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포위하고 있던 앗수르 군대 18 만 5 천 명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남 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북 이스라엘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 1: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흠어버리시고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시며 자식
으로도 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호세아서가 심판의 메시지로 여기서 끝나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죽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 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 1: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북 왕국과 남 왕국,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등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롬 9:25-26)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남동생은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누나인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육체까지 병들어 썩어 문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나인 저조차 말도 섞기 싫은 그 더러운 죄투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아들 삼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더러운 아들을 당신의 피로 희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품에 안고 천국으로 데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확실히 사람과 다르셨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관해 미흡하나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떠들어댔지 진실로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나를 살리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 모두 미친듯이 목이 터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외쳐야만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값는 길인 것입니다.